

지금시기 60세서 65세로 늦추고 고액수령자 10년간 동결

정부안 보다 더 세진 새누리 공무원 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이 27일 '하후상박' 원칙 아래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당 차원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여권은 '연내 처리'를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100만 공무원 집단과 '연내 처리 불가' 방침을 천명한 야당의 반발로 향후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정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 재직연수에 평균 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을 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사실상 현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변경,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경찰·일반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납부토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납입금 월급 7%서 10%로

고위직이 하위직 보전

'하후상박' 구조로 변경

연내 법제화 드라이브

노조 반발·새정치 반대

기여토록 했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액 지급 정지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지도부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을 공언하는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티어 온 공무원들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 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또 조만간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당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단점에서 '하박상박'의 개혁안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

이창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7일 국회 정문관에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의원 vs 후보자' 경선 이뤄지나

새정치연합 조강특위 오늘부터 마라톤회의 지역위원장 선출방식·시기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 조강특위(조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28일부터 30일까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중앙당 실사를 마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는 한편 지역위원장 경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한다.

조강특위의 가장 큰 고민은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복수의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내부적으로는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는 점에서 경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선 실시 의견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공모를 해 놓고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흐름을 역행,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복수의 지역위원장 후보가 있는 곳은 전

국적으로 14곳(서울 4, 경기 3, 호남 3, 인천 1)에 불과하다는 점도 경선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정강특위 위원인 모 중진 의원은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혁신의 흐름에 반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클 수 있다"며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인지도 등 정치적 기득권이 있는 점에서 경선을 회피할 명분도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공식인 광주 서구 을과 순천·곡성의 지역위원장 선출 방법도 관심사다.

일단 경선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강특위에서 특정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는 호남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5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2~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것-오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경선 방법은 당원과 지역구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 심사를 통한 지역위원장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위원장에 공모한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 심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개혁안	정부안(10/17 발표)
소속재분배 가능	있음	없음
수급자 대상 재정 안정화 기여금	'16년부터 수령액에 따라 2~4% 차등 부과(삭감)	'16년부터 3% 일괄 부과(삭감)
지급 개시연령 (현행 60세)	'23~'31년에 걸쳐 65세로 상향	'25~'33년에 걸쳐 65세로 상향
납입기간 상한 연장 (현행 33년)	중년 재직기간 30년 미만인 공무원부터 적용	중년 재직기간 33년 미만 공무원부터 적용

윤장현시장 "무등산 군부대 이전 시급, 필요하다면 국방장관 만날 것"

비정규직 정규직화

광주시 선제적 추진 당부

윤장현 광주시장은 27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시급한 과제며, 필요하다면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등산에 구축되고 나면 이전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관련부서는 방공포대 이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일보 27일자 1·6면 참조)

윤 시장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의 질을 높

이는 것도 중요하다. 법으로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민선 6기부터는 무기계약직에서 명칭을 바꾼 공무원들의 문제(열악한 임금·복지 등)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연계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시장은 내년도 국방확보와 관련해 서도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의 '쪽지

예산'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핵심 예산은 반드시 상임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별 전담분야를 정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민선 6기 역점 사업인 자동차밸리조성사업과 3D콘텐츠 미디어산업클러스터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www.HanaTour.com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 소 :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상당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리치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향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하와이 에디션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방콕 전세기 출발일 표기

일	화	수	목	금	토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5	26	27	28	29	31

출발일 1/1(목), 1/5(월), 1/9(금), 1/13(화), 1/17(토), 1/21(수), 1/25(일), 1/29(목)

AAFP11-0X1 방콕/피타야 5일

총 상품가액 1,014,800원 ~

AAFP11-0X2 방콕/피타야 5일

총 상품가액 1,314,800원 ~

AAFP11-0XA 방콕/피타야 5일

총 상품가액 1,464,800원 ~

AAFP11-0X1 방콕/피타야 5일

총 상품가액 1,453,900원 ~

AAFP11-0A 사이판 4/5일

총 상품가액 851,100원 ~

AAFP11-0Z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8일

총 상품가액 3,186,300원 ~

AAFP11-0E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총 상품가액 4,086,300원 ~

■ 여행상품 가격표에 기재된 유류할증료·공영요금·보험료·관광진흥기부금·운송수속비·식사요금·여행자보험료·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에게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 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집포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락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에 의한 책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집포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상황에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편집수 Tel 1577-1233(ARS 내내번호 0번) ■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